

# 시각장애인과 쇼핑할 때

시각장애인에게도 쇼핑은 단순한 생필품 구입뿐만 아니라 기분전환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중요한 일상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형할인점은 구매를 도와주는 점원이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혼자서 쇼핑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혼자 쇼핑을 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구입하려는 품목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동일 품목에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정보를 알려준다면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은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선물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 02-950-0109)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예금주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은행 1005-201-776110  
(예금주 :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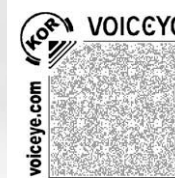
##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9권 5호 통권 155호

2013년 6월 15일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제작 크리콤 (T.02-2269-6224)  
전화 02-950-0109 팩스 02-934-8069  
Homepage www.nowonblind.or.kr  
E-mail kbuhongbo@hanmail.net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 4동 157-33번지 2층

### 표지 사진설명 - 위쪽부터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개관을 맞아 현판 제막식을 하는 모습
- 백제 역사에 관한 점자 도서를 읽는 시각장애인 참가자
-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현아 씨(왼쪽)

우측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 손으로 보는 세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악인이 아닌 국악인 이현아로 기억되고 싶어요”



###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 이현아씨를 만나다

지난 4월에는 제33회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는 국립국악원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대회로 국악계의 등용문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대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현아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현아 씨는 현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악 중에서도 국악의 성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가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현아 씨는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전맹이지만 정가를 배울 때는 수업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해서 모든 내용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악인 이현아로 기억되길 원한다는 현아 씨.

앞으로 좋은 소리로 공연하시면서 현아 씨의 꿈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 공연 중인 이현아 씨



▲ 인터뷰에 응하는 이현아 씨



### 우리 함께 “손끝으로 느끼는 색깔 체험”으로 떠나볼까요?



▲ 백제 역사에 관한 점자 도서를 읽는 시각장애인 참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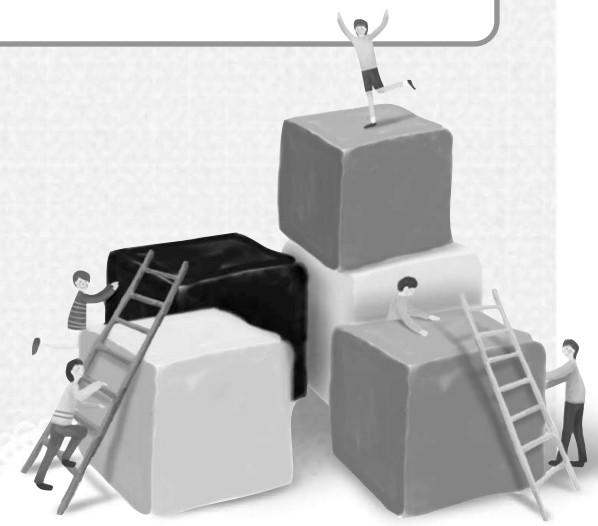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 참가자가 경단을 직접 만드는 모습



▲ 경단 재료를 손으로 만져보는 시각장애인 참가자

지난 5월 13일, 20일, 27일에는 시각장애인들과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하여 “손끝으로 느끼는 색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사회적 기업인 (주)놀이나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손끝으로 느끼는 색깔 체험”은 ‘백제 유물 속에서 오방색을 찾아보고 촉감으로 오방색 체험하기’를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한성백제 역사와 우리나라 오방색에 대해 배우고, 직접 오방색 경단 만들기, 박물관을 손끝으로 느껴보기 등 다양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 드디어 경기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생겼어요!

지난 5월 27일, 경기도 의정부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관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손쉽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노인층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복지관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 개관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는 모습



▲ 개관식을 축하하는 내·외빈



▲ 연합교육을 받는 모습, 미술치료를 받는 홈헬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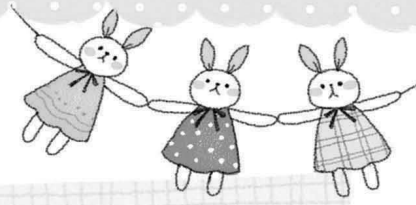


## 여성 장애인을 돕는 홈헬퍼! 홈헬퍼 상반기 연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서울시청에서 홈헬퍼 상반기 연합교육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여성 장애인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홈헬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았는데요.

홈헬퍼(Home Helper)란 시각·청각·지체 장애 등을 겪는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와 양육을 지원하는 도우미입니다.

이번 상반기 연합교육에서는 미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탐색, 수납법·정리법 익히기 등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상반기 연합교육을 통해 하반기에도 홈헬퍼들이 여성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 5월 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 역시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 원하는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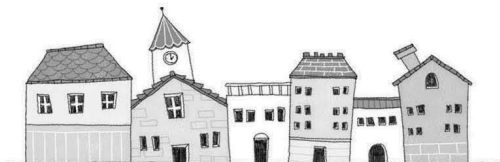
02 지난 5월 22일 대한의사협회와 사랑의 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착한 손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쌀 500kg 가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쌀은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0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개발한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통신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합니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도서, 뉴스, 잡지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04 5월 8일에는 도시철도공사 도봉차량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무료안마시연이 있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함께 관람해서 더 아름다운 공연 “아름다운 것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의 공연 나눔 기부를 받아 시각장애인에게 공연 관람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관람한 공연은 가수 양희은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공연에 약 300명의 시각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공연 나눔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공연을 직접 관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공연 나눔 기부가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